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6월 3일

CUOMO 주지사,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투자 발표

GW Pharmaceuticals와 뉴욕주는 어린이의 내약성 간질 치료를 위한 마리화나 추출물 사용을 조사할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발작과 기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간질 환자를 돕기 위해 뉴욕주와 GW Pharmaceuticals가 마리화나 식물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을 사용하는 임상 실험을 개발하도록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의학적 상태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지 못한 어린이이며 뉴욕주는 칸나비디올(CBD)이라고 하는 추출물을 사용한 임상실험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어린이 환자는 더 이상 내약성 간질의 심각한 피해를 견디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뉴욕의 어린 환자들은 효과적 치료를 받아 마땅합니다. 뉴욕주는 칸나비디올의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현대 의학의 경계를 넓히고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협력으로 이러한 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뉴욕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OH)는 미국 식약청(FDA)에 제출할 임상 실험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GW Pharmaceuticals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CBD 제품인 Epidiolex®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휴 기관에 직원 및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욕주의 병원, 대학,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도록 설계된 이 임상 실험은 중요한 의료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 커뮤니티의 내약성 간질을 앓는 어린이를 위한 치료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GW Pharmaceuticals의 Dr. Geoffrey Guy 회장은 “뉴욕주와 협력하여 CBD가 내약성 간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에 대한 CBD 효과의 이해를 확대하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와의 이번 협력은 60명의 어린이들이 Epidiolex 투약 허가를 받은 New York University의 Langone Medical Center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GW Pharmaceuticals 소개

GW Pharmaceuticals은 카나비노이드 처방약 개발 부문에서 세계적 리더로서 미국 식약청(FDA)과 미국 마약단속국(DEA)로부터 허가를 얻어 미국 연방법에 따라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FDA는 의사가 후원하며 미국 전역의 12개 장소에서 300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Epidiolex를 사용하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IND) 프로그램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또한 GW는 2가지의 희귀하고 심각한 형태의 어린이 간질인 드라베 증후군과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LGS)에 초점을 맞춘 Epidiolex를 위한 회사 후원 공식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